



사진 : 김영철 빈첸시오
(정관성당·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 제물진두 순교성지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024년 9월 29일

입 당 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 1 독 서

민수기 11,25-29

화 답 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후렴) 주님의 규 - 정 을 바 르 니 마 음 을 기 뵈 게 하 네.

1.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2.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3.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4.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 2 독 서

야고보서 5,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 음

마르코 9,38-43.45.47-48

영 성 체 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어릴 적 추억 중에 오징어달구지, 자치기, 말뚝박기, 다망구 같은 놀이를 동네나 학교 친구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기억이 있다. 이때 제일 먼저 정하는 것이 있었다. 편 가르기이다. 무조건 편을 갈라야 놀이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런 어릴 적 습관과 기억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걸까?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뉴스들을 보면 온통 서로 편을 갈라서 내편 옳고 네편 틀렸다! 하면서 싸우는 뉴스들이 주요 정치뉴스고 세계뉴스들이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의 철없는 편 가르기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제1독서에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하느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 그들 외에 다른 두 명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예언을 한다. 그러자 2인자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자고 모세에게 건의한다. 우리 편이 아니니 내치자는 것이다. 이에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민수 11,29)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사람 몇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발한다. 우리 편이 아니니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자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마르 9,39-40)

오늘 성경 말씀들은 자신이 속한 편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신다. 신앙인은 편을 가르기 위해서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야 한다. 내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무조건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제2독서와 복음의 다른 부분들은 편 가르기가 그냥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큰 죄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이 나온다. 야고보서는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독선적인 부자들에게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야고 5,1)하고 있고, 복음에서는 남을 죄짓게 하느니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마르 9,42)라고 말씀하신다. 습관적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은 분명 죄에 가깝다.

마지막 마무리는 세계적 석학인 움베르토 에코의 저서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윌리엄 수사의 대사로 같음한다.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진리... 이런 게 바로 악마야!”

차 공 명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
부곡성당 주임



작품 설명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단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서 그분께서는 저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 함께 걷고, 따르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진 : 김영철 빈첸시오(정관성당·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 제물진두 순교성지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

부산교구 노동사목 산하 베트남신앙공동체는 세 곳입니다. 사상성당에서 주일미사를 봉헌하는 부산베트남공동체, 웅상성당에서 토요일마다 미사를 봉헌하는 양산베트남공동체, 무거성당에서 매월 첫 주에 미사를 봉헌하는 울산베트남공동체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웅상성당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일을 기억합니다. 이날 주보성인 축일을 맞아 미사와 행사를 진행했는데, 다른 베트남공동체 친구들은 물론 웅상성당 주임 신부님과 본당 수녀님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6월 무거성당의 아름다운 일도 기억합니다. 울산공동체 설립 1주년을 맞아 미사와 함께 주보성인 축일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도 다른 베트남공동체 친구들과 특히 울산 필리핀공동체의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일은 성찬 전례 거행도 있지만, 또 다른 아름다움 - 바로 ‘연대’, 혹은 ‘더불어’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는 부산, 양산, 울산이라는 지역적 선을 넘어서 ‘더불어’의 아름다움입니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 필리핀이라는 국경을 넘어서 연대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저는 교황님의 담화를 떠올렸습니다.

담화에서 교황님께서서는 회칙 「모든 형제들」 35항의 “부디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소원을 다시

언급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하도록 창조하시며, 세세 대대로 더욱더 번성하도록 정해진 ‘우리’를 만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당신 모습,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 민족주의 경향이 등장합니다. 이런 배타적 경향으로 많은 이주민과 난민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국경의 의미가 멀어지고 민족과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불어’의 아름다움이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국적과 민족이라는 선을 넘어서 ‘우리’라는 세계를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은 바로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고 함께 일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없어질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품어 안는 단 하나의 ‘우리’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제107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중)

트란 국 풍 (TRAN QUOC PHONG) 요셉 신부
노동사목 부산본부 베트남전담사제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3.7MHz	녹산(서부산) FM 101.5MHz	마산 FM 101.7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9.30(월)~10.5(토) 차광명 신부(부곡성당 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김소현 아나운서 9.30(월) <날날 이 본당-베트남 공동체> 출연: 팜 홍 디엠 마리아	 대정다감다섯시 월~금 17:00~18:00 진행: 이한나 아나운서 9.30(월) <부캐월드> 출연: 김태균 영화감독					

〈사회교리학교 주제강좌〉 “교부들과 사회교리-평화와 자선”에 초대합니다.

가톨릭교회를 받쳐 주는 든든한 두 기둥은 ‘성경’과 ‘성전(聖傳)’입니다. ‘성전’의 한 축인 교부들은 그리스도교 교리와 사상의 기초를 놓은 이들로 이들의 삶과 영성은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민중들의 희로애락이 뒤엉켜진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부들의 삶과 영성은 사도시대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교회는 그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믿기에 그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또 하나의 신앙의 샘으로 받아들여 진지하게 배우고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시대적 징표’를 읽음으로써 그들을 과거뿐 아니라 ‘오늘의 교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형제애’를 파괴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결과가 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빈곤 그리고 차별과 배제가 소수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부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주제강좌를 통해 세상에 ‘봉사하는 청지기’로서 새로운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더불어 ‘하느님의 손과 발’로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 시 10.16~11.6 (4주간 수요일) 오후 7시

장 소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수강료 4만원 (수도자, 정의평화위원회 후원인 : 3만원)

부산은행 113-2000-8639-05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입금 시 “이름+사회” 표기 (예: 홍길동사회)

대 상 관심 있는 누구나

신 청 10.10(목)까지

<https://forms.gle/bC7UE83dTrfXGStA7>

문 의 051)465-9508,
busanjustice@naver.com

날짜	분류	강좌명	강사
10월 16일	평화 1	지금, 왜 교부들인가?	김현 신부 (석포성당 주임, 교부문학 박사)
10월 23일	평화 1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	
10월 30일	자선 1	가난한 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1월 6일	자선 2	재화의 공공성 - 모든 재화는 인류의 공동재산	



수강신청
바로가기

※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복음을 토대로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힘씁니다.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9월 12일~9월 21일] 합계 : 8,702,433원, 누계 : 3,319,452,665원

이유미 3,000,000 김정은 1,000,000 권향임 1,000,000 고영동 500,000 손정우 500,000 정미숙(동원당) 100,000 공간하우정김기수 50,000
김지은 180,000 남경화신현기 50,000 김인덕 10,000 안창열 50,000 이광직 10,000 전정희 30,000 이진명 1,000 김유빈 1,333 문지완 100
류선희 200,000 표정민 100,000 표가령 100,000 표서운 100,000 고강일 50,000 박용득 50,000 김용례 10,000 방태우 50,000 박경숙 30,000
차덕희 100,000 한은주 100,000 김충일 100,000 허성현 100,000 문영근 50,000 오해주 50,000 정수자 30,000 박정선 50,000 이미영 50,000
박준현 150,000 조혜란 100,000 이옥경 100,000 임부연 100,000 홍수연 50,000 이호임 50,000 조운화 50,000 박윤희 50,000 박선주 50,000
이진우 100,000 임혜성 100,000

농협 301-0629-8734-11, 부산 113-2014-1175-03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이 함께하는 교회, 환대와 경청의 실천

우리 교구 많은 본당에서는 환대와 경청을 실천하며 청소년·청년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거성당(주임: 김수원 신부,

회장: 정구경 베드로)은 신앙 교육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편안히 머물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청소년 심터를 새로 마련하여 9월 21일(토) 축복식을 가졌다. 같은



무거



방어진

날 방어진성당(주임: 서정웅 신부, 회장: 최춘희 데보라)은 젊은이의 날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해 공동체의 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학교법인 성모학원, 합동 건진성사

9월 13일(금)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 (부산가톨릭대학교 7명, 대양고 32명, 데레사여고 39명, 성모여고 35명, 지산고 29명 총 142명) 학교법인 성모학원(상임이사: 조동성 신부) 주관

양산성당 노인분과, 아나바다 운동 개최

9월 7일(토)~8일(일)/내용: 수익금 446만원 오륜대순교자성체전달
주임: 석판홍 신부, 분과장: 박외자가브리엘라

기도하는
교회
Ecclesia Orans

장례미사 때는

시작예식의 성호경, 인사, 참회를 생략하나요?

생략하지 않습니다. 장례미사는 다른 모든 미사와 같은 방식으로 거행합니다.(주교예절서 832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 직전에 나온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에는 장례미사가 입당 후에 바로 본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주례사제와 교우들이 이미 죽은 이의 집에서부터 모여 출관예식을 거행하고 함께 성당으로 행렬하였기에 장례미사를 시작하면서 성호경, 인사, 참회 등의 예식을 다시 거행하는 것은 부당한 '중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우들은 출관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성당에 모여 있으며, '죽은 이의 집에서 하는 예식을 거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당 입구에서 대신

거행하는 예식'(장례예식 36항)에도 참여하지 않고 신자석에서 기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당 입구에서 거행하는 예식은 미사와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례미사는 시작예식 일부를 생략하지 않고 다른 모든 미사처럼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모든 교우들이 처음부터 함께 모여서 행렬에 온전히 참여하는 성지주일 미사와 부활성야 미사의 경우는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호경, 인사, 참회 예식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략합니다.

■ 전례위원회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부산)

· 10.4(금) 13:30 목주기도, 14:00 미사
· 교구청 5층 사랑실 / 문의: 629-8760(성소국)

교구청 직원 구함

모집분야: 사무 및 전산 업무(1명)
서류: 이력서, 교적, 자기소개서, 본당신부추천서, 자격증 사본 / 접수마감: 9.30(월)
접수: 방문, 우편, 이메일(manage@catb.kr)
문의: 629-8733(관리국)
※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 리 구

죽림굴 발견 38주년 기념 미사

· 10.4(금) 11:00 · 죽림굴
준비물: 미사 도구, 개인 도시락, 성지 보존 현금
문의: (052)262-5312(연양성당)

본 당

봉래성당 본당의 날 축제

· 10.3(목) 19:00 모차르트 레퀴엠 미사곡과 함께 하는 프란치스코 전이예식 미사
· 10.4(금) 10:30 프란치스코 축일 미사
18:00 건축기금 마련 일일 호프
· 10.5(토) 15:00 동식물 축복식(반려동물, 반려식물 데리고 참가, 그냥 참가 가능)
19:30 청년성가 연주회(그소리 들었네)
· 10.6(일) 10:30 (06:30, 19:00 주일미사)
교구 수호자 대축일 미사 / 문의: 416-0233

중앙성당 제7회 용두산길 음악회

· 10.5(토) 19:30 · 주교좌 중앙성당 대성전
문의: 246-4284(사무실)

울만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이력서, 본당신부추천서, 교적사본
자격: 전산(한글, 엑셀)가능 / 문의: 973-9509
근무: 토 17:00~21:00, 일 09:00~14:00
※ 토, 일요일만 근무합니다.

무거성당 성가대 지휘자 구함

서류: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문의: (052)277-1644(본당 사무실)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을 9월 울산후원회미사

울산: 9.30(월) 11:00 야음성당
문의: 782-0765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미사

· 10.1(화) · 중앙성당 대성전
10:00 성시간, 11:00 월미사(양형영성체)
미사집전: 이종민 지도신부 / 문의: 466-2290

군중후원회 미사

울산: 10.4(금) 10:00 옥동성당
주례: 전재경 신부(51지역방위사단 전승성당)
부산: 10.17(목) 10:30 금정성당
주례: 박근혁 신부(제10전투비행단 화성대성당)
문의: 751-3610, (052)274-3608

목주기도 성월과 함께하는 찬양성시간

· 10.10(목) 20:00 · 서면성당 성전
문의: 809-0642

파티마의세례사도직 월 피정 및 미사

- 9월 월 피정
· 9.30(월) 09:30
강의 및 미사: 전수홍 신부(토현성당)
- 10월 첫 금요일 미사
· 10.4(금) 22:00 (미사 22:30)
- 10월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0.5(토) 11:00 미사 / 내용: 가정 봉헌식
봉헌하실 분은 사전에(7일전) 연락 바랍니다.
문의: 646-3746, 010-6764-3746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10.7(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10.8(화) 10:00 야음성당
부산: 10.10(목) 10:30 우동성당
문의: 600-8800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0.15(화) 매월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이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김기영 신부 / 문의: 010-8879-2376

부산가톨릭 음악세상 16

· 9.30(월) 19:00 라틴어 노래미사 19:50 음악회
·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이정식 요한관)
주례: 임석수 신부
출연: 에디스 클라리넷 4중주
문의: 010-7767-4390(무료초대)

로사리오의집

- 파우스티나 성녀 축일 미사
· 10.5(토) 11:00 (30명 선착순)
-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10.12(토)
(매월 2주 토요일) 고해성사, 미사, 기도, 강의
문의: 010-7155-3498

꾸르실로 참가신청

451차 자매: 10.17(목)~20(일)
452차 형제: 10.24(목)~27(일)
※ 신청서 상시 접수(각 차수 50명 선착순 마감)
문의: (055)388-5734 또는 본당 간사

ME부산협의회 402차 ME주말

· 10.18(금) 19:00~20(일) 17:30
· 마리아피정센터 / 대상: 부부(결혼3년 이상, 종교무관), 성직자, 수도자
문의: 010-3362-9173, <http://bsme.or.kr>


부산가톨릭청년합창단 CAELESTIS
제2회 정기연주회 위도의 밤 With Rosary
일시 10월 12일(토) 17:00
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
| 전석 초대 | 문의 051)629-8784 *기념품 제공(선착순)



(주)씨 피 여행사 12/2 나가사키 순례 항공 3일 KE 2/11 멕시코 과달루페 순례10일 AM 2/23 파티마, 루르드 스페인13일 KE 247-5858, 010-3837-6434	바른 성모 안과 백내장, 망막(망막학회정회원) 중점진료 성모안과병원 출신 직접 백내장 수술 망막학회정회원 원장: 최우석 베드로 자갈치역 서구청옆 242-0075	평 화 클 린 에어컨 청소전문 010-3864-5713 양승계 요한	스마일정경우비뇨의학과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744-8181, 010-5616-8600
성신익스프레스(영구이사) 이사전문, 청소상담, 기업이사 어려운 이웃돌봄(무료이사상담) 대표: 김명수 대건안드레아 대표번호 010-8521-2488	범무법인 대한중앙 민형사, 행정, 가사 등 제반분야 법률상담 / 대표변호사: 정민(가브리엘) 714-3681, 010-9594-2360 부산법원 정문 맞은편 골목 와우빌딩 2층	제주 성산골든뷰호텔 제주 성산일출봉·섭지코지 길목 본당 단체별 맞춤 순례·가족·개인 문의시 천주교 신자용 할인쿠폰 증정 대표 오일석(요한) 064-784-8885	미카엘여행사 성지순례 (부산출발) 10/17 베트남 다낭 5일 10/28 베트남 나트랑·달랏 5일 (부산출발) 제주·한국성지167 모집중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성령새신 봉사회(영성의집)

-수요 성시간 치유기도와 미사
·10.2(수) 13:00~15:30
-금요일 성시간 치유기도와 미사
·10.4(금) 19:40~22:30
-심화과정 2단계2차 기초봉사자교육2
·10.6(일) 13:00~17:00
-중앙성당 수요 성시간 기도회와 미사
·10.9(수) 13:00~15:30(매월 둘째 수요일)
-24년 성령새신 부산대회
·10.12(토) 09:00~17:30
강사 : 김경희 수녀, 한연홍 신부 / 미사 : 손삼석 주교, 전담신부 및 지도사제단, 강사 신부
* 미사도구, 묵주, 돗자리, 도시락, 컵 등은 개인별 지참요 / 문의 : (055)382-9465

성령새신 봉사회(울산 영성의집)

-목요일 미사 (묵주기도의 밤)
·10.3(목) 20:00~22:30
-치유 낮 기도회 (매월 첫 화요일)
본당 모든 기도회원 초대합니다.
·10.1(화) 13:00~15:00(미사 14:20)
·울산 영성의 집 / 문의 : (052)244-7014

부산가톨릭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평생교육원 「깃들다」 특별 전시회

·10.6(일)~7(월)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양재현마르티노관, 이정식요한관
내용 : 평생교육원 작품전시회 및 초청특강
문의 : 519-0492~4, 홈페이지 edu.cup.ac.kr

부산성모병원 2025년 신규간호사 모집

응시자격 :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2024년 졸업예정자 / 접수 : 10.1(화)~25(금)
지원서 교부 : 홈페이지 (www.bsm.or.kr)
문의 : 933-7036~8(간호부)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개인간병(65세 미만), 완화병동보조인력(62세 미만, 자격증소지자)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 근무
문의 : 933-7042, 010-3572-7045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매주 월,금 14:00~15:30
문의 : 515-0030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교육관 계약직 직원 구함

근무 : 계약일로부터 1년간, 09:00~17:00, 14:00~22:00 순환근무 / 문의 : 510-0986
담당업무 : 기숙사 관생관리 및 행정업무 보조
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학교 누리집-CUP 광장-일반공지) / 접수 : 우편, 방문접수(금정구 오륜대로 74 카리타스관 행정실)

무료진료소 도로시의집 봉사자 모집

·일 14:00~17:00(월 1회 또는 격월 1회)
대상 :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
문의 : 010-4499-0100(노동사목)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10.4(금) 10:30 ·남천성당
문의 : 010-9081-1743, 582-1774

삼위일체수녀회 성소모임

·10.6(일) 14:00~17:00 ·영주동 본원
문의 : 010-7458-3217

마리아 수녀회 후원회 미사

·10.7(월) 11:00 (미사 후 점심식사 제공)
·송도 알로이시오 놀이터 1층
문의 : 250-5406, 010-6267-9442

<1일피정> 성경은 왜 다른 책들과 다른가? 어떻게 다르게 읽어야 하는가?

·10.19(토) 10:00~16:00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양재현마르티노관 201호
참가비 : 5만원 / 접수 : 010-8193-2648
동반 : 이영근 수사(양주올리베타노수도원)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 성인, 청소년 (비신자포함)
내용 :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성장 등
상담사 : 홍영미 수녀(심리학박사, 가톨릭상담사1급)
상담 : 010-4539-3101(화~토 10:00~17:00)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 11.1(금)~9(토), 12.6(금)~14(토)
하느님,바람,내(힐링피정) : 10.11(금)~13(일)
문의 : 010-3340-0201(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2024 한티가는길 행사

·10.26(토) 09:00~16:00
인원 : 2,000명 선착순(1만원, 중식 포함)
신청 : hantigil.hanti.or.kr
주최 : (사)한티(한티순교성지)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자연순례 : 10.14~16, 10.23~25, 11.1~3, 11.7~9, 11.21~23, 12.1~3, 12.6~8, 12.14~16
추자도포함 : 11.16~19, 11.25~28, 25.3.13~16
연말연시(한라산) : 12.29~1.1(해넘이/해돋이)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 (064)796-4182, (02)773-1455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 오르간, 작곡(CCM 작곡 포함), 합창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전형일 : 11.15(금) 최양업홀(서울시 중구 종림동 소재) / 원서접수 : 10.14(월)~25(금)
문의 : (02)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전국최초 전국유일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미려한 스테인드글라스와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Brilliant & Holy Wedding

초역세권 탁월한 교통망 ; 전국 최대 무료주차 제공 성당
《독보적 16관왕 달성》 Only 혼인미사 및 Remind 웨딩 패키지 출시

051.441.3500 catholicwedding.kr



부산가톨릭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성분도 치과 병원

울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운영
752-9011, 752-9022
010-2755-9011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2번출구

김용기내과의원(구.김동수내과)

원장 김용기, 부원장 김인주, 부장 김영민
김지량,안강희,오민영,김상미,김정미,이욱
평일 8:30~17:30 토 8:30~12:30
1호선 자갈치역 3번출구 245-7100

우리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정비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및 신차의 모든 차량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해운대 유진한의원

만성염증, 통증, 치매예방, 파킨슨
해독디톡스 다이어트 전문
원장 김병학(안토니오) 747-7234
해운대시장 입구 농협 옆 2층

50년전통 명신당

묵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범일역 1번출구 진시장 방면 50m

리즈 김상식안과

안검하수 / 눈썹찌름 / 안성형
성형안과 전문의
원장 : 김상식(디오테오)
335-1004 지하철 덕천역 9번 출구

박숙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우울장애,수면장애,치매,환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의학박사
박숙현 에스텔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출구, 대남빌딩 5층

가톨릭여행사

1.7 유럽4개국 성모님3대발현지 12일
1.17 이탈리아 일주(히년 전대사) 12일
3.10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